

해리엇 비처 스톤 (1811-1896)

미국 코네티컷 주 리치 드 출생. 아버지는 목사였으며 남편은 신학자였다. 종교적인 집안 분위기와 코네티컷과 이웃한 켄터키 주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그녀는 평소에 노예제도에 대한 반감이 컸다. 특히 1850년 발표된 ‘도망노예법 Fugitive Slave Laws’(도망한 노예에 대한 단속법안)은 그녀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고 1852년 《톰 아저씨의 오두막 Uncle Tom's Cabin》을 출간하기에 이른다. 이 소설은 원래 1851년에서 52년에 걸쳐 《The National Era》라는 노예제도 폐지운동 기관지에 연재했던 것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으로, 간행 1년 만에 30만 부가 팔리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 그녀는 결혼 후 잇따른 출산으로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도 글쓰기를 계속하여 《목사의 구혼 The Minister's Wooing》(1859) 《올드타운의 사람들 Oldtown Folks》(1869) 등을 남겼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이 그녀를 가리켜 ‘the little lady who started this big war’(바로 이 위대한 전쟁을 시작하게 한 조그만 여성)라고 했을 만큼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흑인 노예 톰과 그 주변 인물들을 그린 이야기이다. 농장 사업이 위기를 맞자 쉼비는 흑인 노예 톰을 노예 상인에게 팔기로 한다. 톰은 팔려가는 배 안에서 에바라는 천사 같은 소녀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일하게 된다. 하지만 에바가 죽고 우연한 사고로 에바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지옥 같은 레그리 농장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곳에서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톰 아저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독실한 신앙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마침내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

이 소설은 감상적이고 설교적이며 인물의 선악 대비가 전형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소설적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이 소설 이후 비로소 미국인들은 노예가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감정을 지닌 인간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 책 속에 녹아 있는 평등, 자유, 박애 정신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이뤄내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제 1 장] 노예와 주인

p. 12-13 1800년대 초, 미국에서 흑인들은 자유롭지 못했다. 그들은 노예였다. 부유한 백인 주인들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주인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데 노예들을 이용했다. 많은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가혹했다. 그러나 몇몇 주인들을 친절했다.

주인 셸비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최근에 그의 농장 일이 잘 되지 않았다. 그는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렸다. 그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은 몇몇 노예를 파는 것이었다. 그는 제일 좋은 노예인 톰을 비싼 가격에 팔길 바랐다.

p. 14-15 헤일리 씨라는 노예 상인이 톰을 사러 왔다. 헤일리 씨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그는 노예들을 짐승처럼 다뤘다.

“톰은 내가 데리고 있는 최고의 노예입니다.”라고 주인 셸비는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흑인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소. 그들은 사람도 아니오. 나는 그저 톰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를 사고 싶어 하는 것뿐이오.”라고 헤일리 씨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노예 한 명에 너무 많은 돈을 원하는군요. 노예 아이도 하나 준다면 당신이 필요한 돈을 지불하겠소.” “ 좋습니다.” 주인 셸비는 동의했다. “그러긴 싫지만, 나는 우리 농장을 구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어린 헨리를 주겠습니다. 그 아이는 좋은 노예로 자랄 것입니다.”

p. 16-17 옆방에는 일라이자라는 노예가 있었다. 그녀는 밝은 색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 내 아들, 안 돼!”라고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그녀는 벽을 통해 주인 셸비와 헤일리 씨가 서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는 것이 끔찍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여인은 어렸을 때 엄마와 헤어졌다.

일라이자의 남편인 조지는 며칠 전 캐나다로 도망쳤다. 캐나다에서 흑인은 자유의 몸이었다. 조지는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싶어 했다. 그렇게 되면 주인 셸비에게서 일라이자와 헨리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쁜 남자가 헨리를 남부로 데려간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라이자는 아들을 들어 올려 꼭 껴안았다. “걱정 마.”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실 거야.”

p. 18-19 주인 셸비의 키다리관 집 뒤에는 작은 통나무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다. 이것은 노예들을 위한 집이었다. 오두막집은 작았지만 안은 아주 따뜻했다. 갓 구운 케이크 냄새가 공중에 퍼졌다. 식탁에는 톰 아저씨와 조니가 앉아 있었다. 조니는 주인 셸비의 아들이었다. 그는 톰 아저씨와 그의 아내인 클로이 아줌마를 몹시 사랑했다. 지금 조니는 톰 아저씨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오두막집 안이 갑자기 즐거워하는 그들의 많은 아이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케이크 냄새를 맡자 오두막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조니도 케이크 먹는 게 신이 났다. 톰 아저씨는 아주 행복했다. 그는 아이들 중 둘을 안고는 노래를 불렀다.

p. 20-21 그들이 케이크를 먹고 있는 사이, 일라이자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에게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말했다. “셀비 주인님이 제 이들을 팔았어요! 우리는 달아나야 해요. 우리는 캐나다에 가려고 노력해 볼 거예요. 톰 아저씨, 셀비 주인님이 당신도 팔았어요. 우리와 함께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실 거예요!” “싫다.”라고 톰 아저씨가 말했다. “난 너와 도망갈 수가 없구나. 내가 도망간다면 클로이와 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거야. 내가 팔려 가는 게 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길 기도해야겠구나.”

클로이 아줌마와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일라이자는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헨리를 들어 올려서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 제 2 장 】 집을 떠나다

p. 24-25 다음날 아침 셀비 부인은 일라이자가 헨리와 함께 도망쳤다는 걸 알았다. “아, 이런, 헤일리 씨가 일라이자를 잡게 되면 그녀를 죽여 버릴 텐데.”라고 셀비 부인은 생각했다. 헤일리 씨는 일라이자가 도망쳤다는 얘길 들었을 때 몹시 화가 났다.

셀비 부인은 헤일리 씨에게 시간을 지체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일라이자에게 도망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묘안이 있었다. 그녀의 노예 중 하나인 헤일리 씨의 말안장 밑에 작은 돌을 집어넣었다. 이것이 말을 몹시 흥분시켰다. 헤일리 씨는 오랫동안 말을 탈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말을 타고 일라이자를 찾으러 갔다.

p. 26-27 헤일리 씨는 달아난 노예들이 항상 오하이오 강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이 강을 건널 수 있다면 오하이오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일라이자도 필사적으로 강을 건널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가 강에 다다랐을 때 강엔 얼음이 가득했다. 배도 얼음 덮인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일라이자는 하나님께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헤일리 씨는 일라이자와 헨리를 보았다. “거기 서!” 그가 소리쳤다 “그 아이는 내 거야!” 일라이자는 헤일리 씨와 얼음 덮인 강 사이에 갇혀 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강에 있는 얼음 덩어리 위로 뛰어 올랐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얼음 조각 위로 건 뛰었다! 그녀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에서 피가 났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강을 건넜다.

p. 28-29 오하이오 강 건 편에서 일라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셀비의 친구들 중 한 사람인 심스 씨였다. “심스 씨,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일라이자가 울부짖었다. “노예제도를 싫어하는 한 세력가를 제가 알고 있어요.”라고 그가 말했다. “그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그의 이름은 버드 상원의원이에요.” 심스 씨는 강 건 편에 있는 멋진 저택을 가리켰다. 일라이자는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버드 부인은 일라이자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상원의원과 버드 부인은 일라이자의 얘기를 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캐나다로 가는 걸 도와주기로 했다.

헤일리 씨는 강 건 편에 있었다. 그는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일라이자를 추적한 노예 사냥꾼 한 명을 고용했다. 그런 다음 톰을 데리러 셀비 농장으로 돌아갔다.

p. 30-31 다시 셀비 농장에서는 톰 아저씨가 자신의 오두막집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성경을 읽

고 있었다. 클로이 아줌마는 외쳤다. “그들이 당신을 남부에 팔지만 않는다면 좋을 텐데. 그곳에선 아무도 돌아오지 못해요. 그곳 이레 에서는 노예들을 죽인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소.”라고 톰 아저씨는 말했다. “난 그들이 내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판 것에 감사하오.”

그는 잠든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오두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켈비 부인이었다. 켈비 부인은 그곳에 서서 울고 있었다. “가야 할 시간이에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있는 곳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할게요. 돈을 마련해서 당신을 도로 사올 거예요.”

p. 32-33 갑자기 헤일리 씨가 방으로 들어닥쳤다. 그는 톰에게 “이제 갈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톰 아저씨에게 무거운 쇠사슬을 채웠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차를 타고 떠났다.

마을을 벗어나던 도중에 헤일리 씨는 한 가게에 들렀다. 톰은 밤에서 마차에 앉아 기다렸다. 어린 조니 켈비가 말을 타고 그들을 쫓아왔다. 그는 마차 안으로 뛰어 들어와 톰을 안았다. “난 노예제도가 싫어요, 톰 아저씨!”라고 조니는 외쳤다.

톰 아저씨는 그 아이를 안고는 말했다. “자, 조니 노련님, 어머니께 착한 아들이 되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의 어머니만 주시니까요.” “그럴게요, 톰 아저씨.”라고 조니는 약속했다. 그는 또한 남부로 내려가 톰 아저씨를 사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제 3 장] 자유를 찾아 복으로

p. 38-39 일라이자의 남편 조지도 주인에게서 도망쳤다. 조지의 피부는 아주 밝은 색이었다. 그래서 백인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는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여서 그렇게 했다. 그는 또한 부유해 보이는 옷도 입었다. 그러자 아무도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걸 몰랐다. 조지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던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윌슨 씨였다.

조지의 옛 주인은 가끔 그에게 윌슨 씨의 일을 해주도록 했다. “조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윌슨 씨가 속삭였다. “지금 자네는 아주 위험해!” 조지는 총 두 자루와 칼 하나를 친구에게 보여 주었다. “결투 없이는 아무도 나를 붙잡지 못할 거예요.”라고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p. 40-41 윌슨 씨는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으로 조지를 데려갔다. “자네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라고 윌슨 씨가 물었다. 조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들이 며칠 전에 도망쳤다고 들었어요. 이젠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라고 그가 말했다.

“난 자네를 돕고 싶네.”라고 윌슨 씨가 말했다. “여기 이 돈을 받게.” 그는 조지의 손에 많은 돈을 밀어 넣었다. “고맙습니다.”라고 조지는 말했다. “언젠가 꼭 이 돈을 갚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런 다음 윌슨 씨는 조지에게 충고를 해 주었다. “오하이오 강 건너 편에 도착하면 퀘이커 교도의 교회를 찾게. 그들이 자네가 캐나다에 도착하도록 도와줄 걸세.”

같은 시간, 버드 가족도 일라이자와 헨리를 도와줄 또 다른 가족에게 그들을 데려갔다. 이들은 퀘이커 교도였다.

p. 42 이 퀘이커 교도 가족은 아주 친절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이먼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레이첼이었다. 그들에게는 5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어느 날 사이먼은 일라이자와 레이첼에게 말했다. “친구 데이빗이 오늘밤에 올 겁니다. 그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데려 올 기예요.” 일라이자는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기뻐했다. “일라이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셨소.” 사이먼이 아주 친절히 말했다. “그분이 당신의 남편을 무사히 지켜 주셨어요.” 일라이자는 깜짝 놀랐다. 그 얘기를 듣고 그녀는 쓰러졌다. 그녀가 들은 마지막 말은 “오늘 밤 그를 만나게 될 거요.”였다.

일라이자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조지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방에서 그녀를 꼭 안고 있었다. 헨리는 그들 옆에서 아직 자고 있었다. 모두 너무나 행복했다.

p. 44-45 일라이자, 조지, 그리고 헨리는 그 퀘이커 교도의 집에서 아주 편안했다. 어느 날 조지는 사이먼에게 그와 레이첼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당신들이 도망친 노예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 조지, 내가 감옥에 가야 한다 해도 괜찮네.”라고 사이먼은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거라네.”

갑자기 데이빗이 집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지금 떠나야 돼요! 노예 사냥꾼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은 재빨리 마차를 타고 갔다. 그들은 자신들을 뒤따라오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데이빗은 절벽 앞에서 말을 멈췄다. “내려요. 어서요!”라고 데이빗이 소리쳤다.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요. 저 위에서는 우리를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들은 절벽을 타고 올리기 아주 조용히 기다렸다. 노예 사냥꾼들이 그들을 뒤따라 올리고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p. 46-47 조지는 총을 뽑아서 그 노예 사냥꾼을 쏘았다. 그러자 데이빗은 그 남자를 절벽 밖으로 밀어냈다. 그 노예 사냥꾼은 저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심하게 상처를 입고 거기에 누워 있었다. “살려 줘! 가지 마!” 그 남자는 다른 노예 사냥꾼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타고 가버렸다. “우리가 그를 도웁시다.”라고 데이빗이 말했다. “이제 그는 아무도 해칠 수 없어요.” 그들은 그 부상당한 남자를 들어서 마차에 실었다. 그들은 그를 보살피 주기 위해 한 퀘이커 교도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데이빗은 일라이자의 가족을 국경으로 데려갔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국경이었다. 그들은 자유를 향해 북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 제 4 장 】 천사를 만난 톰 아저씨

p. 51 일라이자와 조지가 북으로 가는 사이, 헤일리 씨는 톰 아저씨를 더 먼 남부로 데려갔다. 그 여행의 끝에 그들은 베를 댔다. 그 베에서 톰은 에바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꼬마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였고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에바는 톰 아저씨를 아주 좋아했다. 그녀는 톰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께 그를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에바, 왜 그를 갖고 싶은 거니?”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물었다. “왜냐하면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에바의 아버지는 세인트 클레어 씨였다. 그는 아주 부자였다. 그는 자기 딸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위해 톰을 사주었다.

p. 52 에바는 튼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와 세인트 클레어 씨는 그의 사촌인 오 리어를 데

리러 간 여행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오 리어가 에바를 돌봐줄 예정이었다.

에바의 어머니 미리는 그녀를 돌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몹시 병약하고 불행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세인트 클레어 씨의 집은 크고 훌륭했다. 그곳은 동화에 나오는 성 같았다. 톰은 자신을 이런 멋진 곳으로 보내 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에바를 돌보는 것이 오 리어와 톰의 일이었다. 그녀는 몸이 아주 약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p. 54-55 몇 달이 지나면서 에바와 톰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때때로 에바와 톰은 노예 제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에바는 노예제도가 톰을 자신의 삶 속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세인트 클레어 씨는 톰이 편지 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는 톰의 아내인 클로이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톰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고 싶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건강하다는 걸 그들이 알길 바랐다.

몇 개월 후에 톰에게 편지 한 통이 왔다. 그것은 조니 셸비가 보낸 것이었다. 거기엔 톰 아저 씨의 아이들이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클로이는 빵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 5년이 지나면 그녀는 톰을 다시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이 편지는 톰의 미움을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었다.

p. 56-57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에바는 점점 약해졌다. 곧 그녀는 늘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를 자기 머리맡으로 불렀다.

“전 곧 천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제가 죽은 후에 톰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세인트 클레어 씨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 애야. 약속할게.” 마침내 에바는 세상을 떠났다.

에바가 죽은 후 세인트 클레어 씨는 톰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다. “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겠네.” 톰은 자기 인생 중 가장 기뻐다. “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세인트 클레어 씨는 산책을 나갔다.

p. 58-59 몇 시간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톰이 문을 열자 한 떼의 남자들이 뛰어 들어왔다. 그들은 한 남자를 들고 있었다. 그건 세인트 클레어 씨였다. “아, 안 돼!”라고 톰이 외쳤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세인트 클레어 씨가 동네 술집에 계셨는데 술 취한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세인트 클레어 씨는 두 사람을 밀쳐서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칼에 찔리고 말았어요.” 잠시 후 세인트 클레어 씨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톰의 해방 문서를 완성하기 전에 죽고 말았다.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톰을 사이먼 레그리라는 못된 농부에게 팔았다. 레그리는 그를 더 남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는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을까봐 겁이 났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톰은 간신히 성경책을 숨겼다. 그는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제 5 장] 머나먼 남부

p. 64-65 레그리의 농장은 끔찍하고 더러운 곳이었다. 톰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했다. 모든 노예들이 들판에서 목화를 따야 했다. 그들은 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했다.

때때로 밤에 톰은 다른 노예들에게 예수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너무 끔찍할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톰은 한 나이든 여자가 자기 옆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아주 약해 보였다. 그녀는 목화를 제대로 딸 수가 없었다. 톰은 목화를 그녀의 바구니에 담아 주었다. 레그리의 하인들은 그녀가 목화를 충분히 따지 못하면 그녀를 때릴 것이다. “그러지 말아요.”라고 그 나이든 여자는 말했다. “그런 짓을 했다고 그들이 당신을 채찍으로 때릴 거예요.”

p. 67 그런데 노예들을 감독하던 남자가 그들을 보았다. 그는 삼보라는 노예였다.

삼보는 주인 레그리에게 톰이 그 늙은 여자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레그리는 화가 났다. 그는 말했다. “삼보, 그를 창고로 데려가서 혼내 줘라.” 삼보는 톰을 창고로 데려가서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다.

그날 밤 톰은 창고에 누워 있었다.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 그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제발.” 그가 소리쳤다. “누기 물 좀 갖다 줘요.” 한 여인이 물을 가지고 창고로 왔다. 그녀의 이름은 캐시였고 톰에게 친절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닦아 주었다.

p. 68-69 캐시는 톰에게 자신의 얘기를 했다. 오래 전 그녀의 아버지는 부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노예였다. 아버지가 죽자 그녀는 노예로 팔려갔다. 나중에 한 젊은 남자가 그녀를 샀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캐시와 그 남자는 딸을 낳았다. 그들은 아주 행복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사촌이 그가 노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냈다. 그 사촌은 캐시의 딸을 그녀에게서 멀리 데려갔다.

곧 톰은 들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매일 하는 일이 그에겐 너무 힘들었다.

p. 70-71 며칠 밤이 지난 후 캐시가 톰에게 왔다. “톰, 레그리가 자고 있어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도끼를 가져와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 우린 도망칠 수 있어요!” “안 돼요.”라고 톰이 말했다. “성경에 살인을 하는 것은 언제나 나쁘다고 나와 있어요. 도망가려면 당신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바로 그때 캐시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캐시는 레그리에게 그의 다락방에서 유령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유령을 아주 무서워했다. 그녀는 그가 이제 절대 그곳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나중에 캐시는 음식과 옷을 챙겼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달아났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친 것을 그가 알게 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높이로 달아났고 그가 자신을 보았음을 확인했다.

p. 72-73 레그리는 곧바로 삼보를 불렀다. “그 미친 노예 캐시가 높이로 달아났다. 개들을 데리고 가서 그녀를 찾아내라. 그냥 죽여 버리고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먹게 해!”

그들은 3일 동안 늘 주변을 뒤졌다. 그러나 그들은 캐시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와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레그리가 다락방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녀는 안전했다. 그녀는 거기 수색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때 진짜로 도망칠 것이다.

p. 74-75 레그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났다. 그는 톰에게 가서 소리쳤다. “캐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해!” 톰은 캐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레그리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인님.”이라고 톰은 말했다. 그러자 레그리는 밤새도록 톰을 때렸다.

톰이 깨어났을 때 삼보가 그의 상처를 닦아 주고 있었다. “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삼보가 물었다. “어떻게 그는 자네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 수 있지? 레그리가 밤새 자네를 때렸지만 자네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

톰은 삼보에게 예수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삼보는 얘기를 듣자 울었다. “그 얘길 믿지 않을 수 없네.” 삼보가 울부짖었다. 톰은 삼보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그의 통증은 너무 심했다.

【 제 6 장 】 마침내 자유를 찾다

p. 76-79 톰은 3일 동안 창고에 누워 있었다. 한 낯선 사람이 레그리의 농장을 찾아왔다. 그 낯선 사람은 젊은 백인이었다. 그는 레그리에게 물었다. “톰이라는 노예가 있나요?” 레그리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오, 여기에 톰이라는 사람은 없소.” 바로 그때 어린 노예 소년이 창고를 가리키며 “톰은 저 안에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 낯선 이는 창고 안으로 걸어갔다. 톰은 고개를 들어 그 낯선 사람을 보았다. 톰은 그가 젊은 주니 쉐비라는 것을 알았다.

“조니 도련님.” 톰이 말했다. “정말 멋진 청년으로 자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쁘게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p. 80-81 조니는 톰이 심하게 다친 것을 보았다. “아, 톰,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을 다시 사려고 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약속한 대로 우리는 충분한 돈을 모았어요.”

“도련님, 너무 늦었어요.” 톰은 힘없이 말했다. “주님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클로이에게 그녀를 만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해 주세요. 그녀와 아이들에게 저를 따라 천국으로 오라고 말해 주세요!” 그런 다음 톰은 세상을 떠났다.

조니는 톰을 안고 한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이 장소는 특별해 보였다. 조니는 마치 하나님이 이 방에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p. 82-83 그날 밤 캐시는 레그리의 책상에서 많은 돈을 훔쳤다. 그런 다음 그녀는 허얀 흠이불을 자기 몸에 덮어 씌웠다. 그녀는 집 밖으로 뛰어 나갔다. 레그리는 그녀를 뒤쫓아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를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캐시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갔다. 그녀는 좋은 옷과 비싼 가방을 샀다. 그런 다음 멋진 호텔로 갔다. 아무도 그녀를 도망치는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캐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주니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톰의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조니는 그녀를 보았을 때 자기가 아는 누군가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p. 84-85 캐시는 조니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 주었다. 그녀는 자기가 도망치는 노예라는 얘기도 했다. 그는 그녀가 캐나다에서 자유에 이르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조니는 캐시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딸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를 닮았는지 깨달았다. “일라이자!”라고 그는 말했다. “일라이자가 누구죠?”라고 캐시가 물었다. 조니는 일라이자가 어떻게 자기 가족의 노예로 어떻게 자랐는지 설명했다. “난 캐나다로 가야 해요.”라고 캐시는 말했다. “내 가족을 찾아야 해요!”

두 달 후에 캐시는 캐나다에 있었다. 웨이커교의 지도자가 그녀를 일라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일라이자와 조지는 5년 동안 캐나다에 살고 있었다.

헨리는 이제 다 큰 소년이 되었고 그들에겐 새로 태어난 딸도 있었다. 문이 열렸다. 캐시와 일라이자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껴안고 울었다. 이제 그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p. 86-87 조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몇 년 전에 셀비 씨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셀비 부인과 클로이 아줌마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톰 아저씨를 찾아 여기저기 보았다. “정말 죄송해요.”라고 조니가 말했다. “톰 아저씨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이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가셨어요.”

셀비 부인은 울기 시작했고 클로이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톰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클로이 아줌마에게 전했다.

한 달 후 조니는 농장의 모든 노예들을 풀어 주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 내게 감사하지 말아요.”라고 그는 말했다. “톰 아저씨께 감사하세요.”